데이터의 시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 까?

관점 마다 다르겠지만..

정보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자면..?

1960년대에 단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의 등장하였음

(이미테이션 게임\_영화 : 전쟁 -> 산업 (특히 은행?)으로 내려옴)

1970년대 좁은 의미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 도입

1980년대부터 초기 단계의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간 업무지원 시스템 출현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정보화 혁명(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됨)

SCM

CRM(기저귀와 맥주?)

KMS

ERP

What's NEXT? -> 애플의 아이폰!

Paradigm shift

21세기는 개인의 만족!

ICT 측면에서도 기업의 효율성 향상에서 개인 삶의 가치 향상으로 전환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정보

데이터 시대!

빅데이터

데이터가 너무 너무 많다! 하두둡, 스파크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은 가장 바쁠 까요?)

하용호

개인 컴퓨터에는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다 저장할 것이다.

센서 는 아이오티 (많은 센서들이 계속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아이오티의 핵심 중 하나 가 많은 센서

센서의 특징은 숨만 쉬어도 데이터를 뿜어낸다.

개인의 데이터가 아니라, 환경의 데이터가 쌓이는

데이터가 너무 많다 -> 자동화된 분석/처리 (머신 러닝)

데이터의 시대

이제는 데이터가 기본 역량 중에 하나가 될 것 이다.